

목포, 3년 연속 마른김 수출 1위... ‘김 산업 중심지’ 부상

1분기 김 수출액 전년比 42.8% ↑
‘국제 마른김거래소’ 설립 등 추진
유통 투명성 확보 글로벌 시장 선도

목포시가 3년 연속 마른김 수출 1위 성과를 이
어가며, ‘김 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
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2024년 김 수출액 1억3
천300만 달러(약 1천840억원)를 달성하며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기록했고, ‘대한민국에
서 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한 3천만 달러(약 415억원)로, 다시 한
번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김 산업 선



목포시 김 공장에서 작업자가 마른김 가공에 한창인 모습.

〈목포시 제공〉

도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목포시가 김을 수출전략형 산
업으로 육성하고자, 행정력과 지원을 집중해 온
결과다.

목포시는 2022년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 산업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아 김 산업 전문화의 기반을 마
련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사업에 선
정돼, 약 3년간 마른김 품질 고도화 연구를 추진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2월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
AS) 인정을 획득하며, 수산물 품질 연구의 신뢰성
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목포시는 김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준비 중이다.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
아 2026년까지 총 1천137억원을 투입, 연면적 4만
6천612㎡ 규모의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 중
이며, 이 단지 내에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설립

할 계획이다.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
지고 있다.

거래소는 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세계 김 산업
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김 수출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한국의 문화, 감성, 자부심을 세계에 전하
는 일”이라며 “김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
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김 수출은 지난해 9억9천700
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 ‘김
수출 1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목포=정혜선 기자

‘전북의 고장’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힘쓴다

세계한상대회 참여...해외 판로 확대

외식·김밥 메뉴 개발...전북 소비 확대

‘전북의 고장, 해조류 주산지’인 완도군이 지
난해 2천22만 달러(약 280억원)의 전북 등 특산
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도 소비 촉
진을 위해 국내·외 활동에 힘쓰고 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전남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
을 수상, 올해도 특산물 수출길을 넓히고자 다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관내 9개 수출 업체와 함께 미국

에서 열린 ‘제3회 장보고 한상 수상자 세계 대
회’에 참가,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총 1천800만
달러(약 257억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수출 협약을 통해 완도 전복과 해조류, 광어
가공 제품, 해조류 원료 화장품 등의 미국 수출
로를 확보했다.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네덜란드, 불가
리아), 동남아(베트남, 라오스)를 대상으로 판
촉진·수출 상담회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완도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제23차 세계한인경제대회에
수출 업체들과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침체, 전북 홍수 출하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자 대형 마트 할인 및
북남 전북데이 등 오프라인 행사와 군 특산물 쇼
핑몰인 완도청정마켓, 남도장터·우체국 쇼핑몰
등과 협업해 온라인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완도군은 2023-2026년 총 5억6천만원을 투입,
‘수산 가공 히트 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외식 트렌드에 맞게 1인 가구·혼밥족 등을 겨냥
한 순살 크림 전복, 전복 꼬치, 광어 크림 리조또
등을 출시했다.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얇썬 김밥’과 손잡고 완도 전복을 활
용한 김밥, 전복 물 쫄면, 전복 비빔밥, 전복 계



살 볶음밥 등을 출시해 5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의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맛과 영양이 우수하다”며 “소
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도 수산물을 많이 찾아주길 바
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농산식품유통센터 설립 ‘착작’

대표이사 등 7명 임원 선발 공고

영암군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영암농산식품유통센터 설립 준비를 순조
롭게 진행하고 있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재)영
암농산식품유통센터 설립 제1차 임원추천위원
회’를 열고, 임원 선발 기준을 확정했다.

올해 10월 말 출범을 위한 본격 행보인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박경곤 전 신안군부
군수가 선임됐고, 임원모집 및 심사기준안도 의
결했다.

영암농산식품유통센터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정
판로 지원,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영암물·공
공급식·로컬푸드복합판매센터 내실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4일까지 영암군
홈페이지에 상임이사 겸 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7명의 센터 임원
공모 공고가 진행된다. 접수는 영암군 농축산유
통과 유통기획팀에 방문, 등기우편 등으로 할
수 있고, 안내는 061-470-2800에서 한다.

이승춘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임원추천위
원회로 센터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첫 단
추를 끼웠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들이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 찾아가는 경로당 ‘호응’

연말까지 34개 마을 순회

함평군 손불면은 1일 “지역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100세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복
지통합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군 손불면은 보건각, 주민복지과와 협력
해 지난달 13일과 20일 각각 호산경로당과 수문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
34개 마을을 순회하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건강100세 시대에 발맞춰 기초건강
검진, 치매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
라, 민원 상담, 발마사지, 네일아트, 피부관리,
염색,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을 돕는다.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다양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특히
웃음치료와 노래교실로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임수영 손불면장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함평=김연수 기자

강진읍시장, 15년 만에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郡, 종합·수산물 대상 10억 투입

화장실 개선·도색·안전 설비 강화 등

강진군은 1일 “오는 8월까지 강진읍시장 중
합동과 수산동을 대상으로 10억원을 투입해 전
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

간으로 개선해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화장실 3곳(종합동 2·수산
동 1)을 포함해 점포 내·외벽 도색, LED 조명
교체, 소방안전 설비 강화 등이다.

어두운 환경과 노후 설비를 개선해 상인과 방
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산동은 바다 방수, 배수관 정비, 노후

스틸그레이팅 교체, 공동처리장 설치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정비가 이뤄진다.

시장 외관도 정비해 종합동·수산동 연결통로
도색과 함께 시장 정제성을 살린 조형물 설치도
병행된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은 15년 만의
시설 정비로, 상인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재탄생 시켜 강진읍 상권 활성화
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군은 최근 해제면 도리포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를 방류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

어족자원 회복...어미낚지 방류도 예정

무안군은 “최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
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
해 마련됐으며, 연안에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

을 집중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
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천200
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 마리, 대하
종자 20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낚지
7천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자
원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
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
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
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주꾸미(5월11일-8월31일)와
낙지(6월21일-7월20일)의 금어기 기간을 활용
해 산란·서식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무안=김성호 기자